

그 땐 왜 몰랐을까요?

강 저편을 가늠할 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눈짐작으로 어림잡았던 것보다 이렇게나 폭이 넓은 길...

그 땐 왜 짐작도 못했을까요?

강의 시작점과 중간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도 물살이 빠른 길...

진성으로 강 저편을 보고 한발 담아 깊이를 헤아린 체  
제땀엔 결연히 나섰던 渡江의 중간지점에서  
이젠 돌아갈 수도 그렇다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도 없는  
막연한 두려움만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고 더 깊은 물살을 가르며 默言의 遊泳을 멈추지 않는  
스승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끄집어 올리고

여전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舞友들의 변함없는  
몸짓을 떠올리며

다시,

저려오는 팔다리에 힘을 주어봅니다.

강 저편에 신기루마냥 하늘거리는 그리운 그 무엇을 향해  
흘깃 돌아본 출발점에서 여전히 눈길을 떼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정신을 추스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온몸을 쥐어짜며

난, 오늘도 이렇게 춤의 江을 건넵니다.

## Hong Soon A 안무 및 출연

- 93 제7회 한국 현대춤협회 콩쿨 금상수상  
일본 사이타마 무용콩쿨 참가  
대구지역간 연합무용제 참가
- 95 현대무용단 「자유」창단 대표 역임  
제4회 부산무용제 참가  
제17회 서울국제무용제 참가
- 96 밀양자유소극장 초청공연 안무 및 참가  
제1회 부산전자음악연구회 대공연 안무 및 참가
- 97 동아시아 폐막식 이양무 보조안무  
제1회 신인 동인 춤마당 안무 및 참가  
제2회 부산바다축제-국제해변무용제 현대무용단 「자유」참가
- 98 〈서울·부산〉제5회 민족춤제전 참가
- 99 〈서울〉제1회 젊은 춤 작가 4인전 안무 및 참가
- 02 〈부산〉월드컵경기장 문화행사 「축하무」안무  
제11회 부산무용제 참가
- 94~01 현대무용단 「자유」 정기 야외공연 안무 및 참가(1, 2, 3, 4, 5, 8회)

## Hong Soon A 작품

- 「입김(95)」 「화혼(96)」 「물레(96)」 「등지(97)」 「빵 먹는 아이들(98)」  
「끝이지 않는 소리(97)」 「꿈 만들기(99)」 「자리(01)」

## Hong Soon A 연극

- 「홍가에 별들아라(01)」 「개똥이 놀이(01)」 「푸른 깃발(01)」  
「도술가(02)」 「세기초기 괴기전기(02)」

E

7-0367 / 011-9885-9046

**Hong Soon A**

박은화 현대무용단「자유」단원  
극단 「부산레퍼토리시스템」 상임 안무  
부산경상대 · 부산대 강사

# 홍순아 현대춤 CHOCOLATE

**2002. 12. 8. SUN. pm 5:00**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극장

부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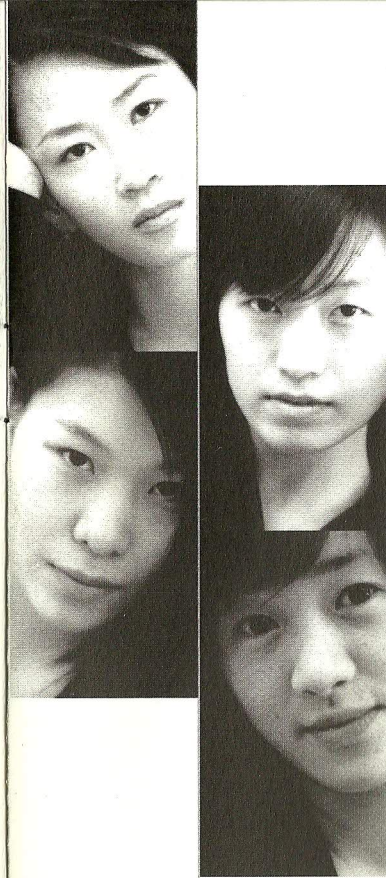
후원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부산광역시



제자 순아를 만난것이 십년은 쉬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지금의 순아 나이 정도가 됐나봅니다.  
 순아는 차분하고 아무진 성격에 속욕심까지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지요.  
 강하고 힘있는 무용수는 아니지만  
 부드러우며 따뜻한 움직임 표현할 수 있는 무용수였습니다.  
 졸업 후 무용단 「자유」창단 회장을 맡아 책임을 다하여 주었지요.  
 일본 사이타마 창작 공쿨 때 함께 작업을 했었으며 많은 작업들을 나눴지요.  
 그 가운데 순아다운 부드러움이지만 세상을 힘들게 훑어보는  
 그녀만의 작품을 크고 작은 무대에 올려 놓기도 하였답니다.  
 이젠 결혼도 하고 한 아이 엄마가 되었네요.  
 그리고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 살림에 부산을 오가며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인접 연극학과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것들이 다 춤 작업에 에너지를 신기 위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애처롭습니다만  
 춤이란 힘들 때 더욱 더 춤추게 만들지요.  
 욕심부리지 않고 하고싶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고  
 버릴것이 있으면 과감히 벗어던지는 순간들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여야 하죠.  
 요즘 순아를 '홍선생' 이라 불러야 하는 자리가 자주 생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업을 할 때 내 바닥까지 다 털어 내고 나면  
 털어낸 만큼 확신과 용기를 얻게되지요.  
 또한 그 속에 부정과 허탈감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때였죠.  
 이제야 개인 출판물을 마련하네요.  
 용기있는 솔직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들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그 행복을 기대해봅니다.  
 공연을 축하하며 함께한 무용수,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것보길 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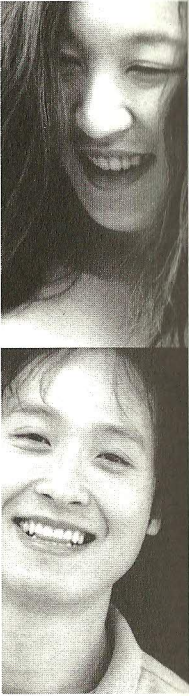
수/현대무용단 자유 예술감독



이주연 김혜원  
 안선희 김민정

CAST

윤경미 진선미  
 주광희 광해성



작

주광희

떨어져 있는 돈을 봤는데  
 줍질 못했어  
 사랑하니까  
 하루종일 화장실도 못갔네  
 사랑하니까  
 동창회 오라는데 못갔어  
 사랑하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나도 못했네  
 사랑하니까

# CHOCOLATE

싫어도 갖고 싶은 내음  
 싫어도 갖고 싶은 손  
 펼쳐라 가슴속 깊이  
 사랑의 속삭임을  
 선택당할것이다  
 그에게...



감독 · 박은화 무대감독 · 이정남 작 · 주광희 안무 · 홍순아 Sound Design · 김재옥 의상 · 김세경 기획 · 박상진 출연 · 이주연 김혜원 안선희 김민정 윤경미 진선미 주광희 곽해성 홍순아